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자료 분석

김석원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대학교)

kievkim@hanmail.net

1. 서론

우크라이나가 독립(1991년)하기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한국학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중앙집권의 공산당 권력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공산주의식 중앙 집권을 강력히 이끌었다. 소비에트 시절의 한국학은 뻬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중앙아시아와 극동 지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나 뻬테르부르크 학파의 연구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도 미미하나마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연구했던 우크라이나 학자나 극소수의 고려인교포 그리고 북한 교환교수 및 유학생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지만 한국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포를 통해 작품을 번역하고 일부 연구자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반도 문학 작품(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한반도 문학으로 통칭한다)을 우크라이나어로 중역으로 번역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키예프국립대학교에 근무하며 주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한을 통틀어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연구 시기를 구분해 보았다. 아직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연구가 미미한 시점에서 시도되는 첫 번째 연구로 연구인력 및 시간의 부족으로 좀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스스로 반성해 본다.

2.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연구의 시기 구분 및 특성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연구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소연방 시절에는 국가 계획 경제로 도서 출판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 도서관과 연구소 및 연구원에게 할당이 되어 계획적으로 책을 출간했으며 소수의 책이 판매되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서 출간된 러시아어 서적이 키예프로 들어오는 실정이었다. 그런 관계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학 연구에 관한 시기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필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기 구분이 가능했다.

첫째, 1917년 이전이다. 이 시기는 한국학에 관한 연구라 할 만한 문건은 극소수였다. 신문이나 잡지에 간헐적으로 조선이나 일본의 조선침략 또는 극동 정세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다.¹

둘째, 1917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하고 혁명 사상 고양을 목적으로 한국학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문학이나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한 문건에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우월성과 그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학 연구도 소비에트 연방의 국익과 외교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물론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어,문학이나 역사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은 순수 인문 자연 학문에

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Описание Кореи-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Часть1,2,3 1900г (한국에 대한 기록-재무부 1,2,3 부 1900 년), Корея - История , политическое устрой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торговля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журна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Ф.И.Булгакова 1904 (한국-역사 정치체제, 경제, 무역, 공업 - 잡지 «외국 문학» 불가코프 1904 년), Великий океан, япония, Корея, как арена современных событий Черкунов .Н Комп Но 2 Киев 1904 (태평양에서의 일본과 한국 그 사건의 현장 체르쿠노프 «종합지 2 호» 키예프 1904.)

서도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보인다.²

셋째,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이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블록 확장과 한국전쟁이라는 큰 세계사적 사건 하에서 적극적인 북한 알리기와 조-소 동맹에 근거한 학술교류와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이 시기에도 러시아어 문헌이 주류를 이루지만 우크라이나 문헌이나 러시아어의 재번역으로 우크라이나어로 출간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넷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는 첨예한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름대로 한국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문학, 역사 등에서 전문적인 서적이 출판되고 원전에 의한 고전과 주로 북한의 작품이나 월북 작가의 작품이지만 번역 출판이 대체로 왕성하게 진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어로도 문학 작품이 번역 소개되었다.

다섯째,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최근까지이다. 이 시기는 북한 일변도에서 한국 일변도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말까지는 북한의 서적이 다수 유입되고 상호 교환 되었으나 1980년대 말을 기준으로 북한과의 서적교류가 끊기고 한국의 서적이 공급되며 친북 성향의 학자들은 남한 위주의 연구를 하느라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발전

우크라이나의 한국어문학 연구는 모스크바와 궤도를 같이 한다. 아마도 중,근동의 30여개 국어를 구사했다는 천재적인 동양학자 아가탕겔 크림스키(Агатангел Кримський 1871-1942) 같은 한국학 연구가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19세기 말

² 구소련 시절에는 모든 학문, 심지어 의학, 수학,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서 레닌 전집이나 스탈린 전집을 인용하는 이데올로기 시대였다.

부터 20세기 초까지 우크라이나에는 한국학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³ 그런 이유로 1917년 혁명 이후의 자료를 찾는 데 만족해야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된 문헌 중 한국문학 번역 및 소개의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조브티스(Жовтіс, O)이다. 그는 한국어에 정통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연구생활을 하며 고려인 교포를 통하여 한국의 고전 시가를 공부한 듯하다. 박 이리나(Ирина Пак)라는 고려인과 공역(共譯)으로 고려인이 러시아어로 직역 한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했으며 우크라이나어로 재번역 했으리라 추측되는 몇몇 번역집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⁴

“조용한 아침의 나라”(Ранковий спокій К 1986), “13-16세기 한국의 고전 시가”(Корейские шестистишия, XIII-XIX Алма-ата 1956), 외로운 학, 16세기 정철 시가 번역(Одинокий журавль, Из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XVI Чон Чхоль М 1975), 은색종(Серебряный колокольчик Минск 1984)(한국시 모음집) 눈속의 대나무(竹中雪)(Бамбук в снегу М 1978) 김소월 진달래꽃(цветок багульники М 1962) 등이 조브티스가 우크라이나에 소개한 한국 고전 문학이다. 번역 작품집에는 13세기 고려가요부터 이조 말의 시조까지 여러 장르에 걸쳐 번역 소개하고 있으며 현대 작품으로 김소월의 시집도 번역했다.

³ 혹시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전문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조사기관의 서적 카탈로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적이거나 논문 등이 한 편도 없다는 의미이다.

⁴ 이러한 예는 러시아에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저명한 여류시인인 아흐마토프는 한국어에 정통한 홀로도비치와 함께 한국시를 번역했다.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М. 1956 перЖ А. Ахматова.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모스크바에서 주로 활동을 한 이바노바(Іванова.В.І)도 우크라이나에 한국 문학을 소개 하고 번역한 사람이다. 그는 주로 산문을 번역했는데 특히 월북작가 이기영 연구는 전 소련 지역 일인자로 손꼽힌다. “이기영의 생애와 작품”(Ли ГиЕн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1962), 에레멘코(Еременко. Л)와 공저인 “한국문학“(Корей 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Краткий очерк. 1964), “새로운 한국의 산문”(новая проза корей 1987) 등은 한국 산문을 소개하는 좋은 역할을 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녀 자신이 직접 번역하여 엮은 “한국의 속담과 격언집”(Корей ські прислів`я та приказки 1978 Киев)이다. 우크라이나어로 한국의 속담과 격언을 소개한 것은 최초이며 아직까지도 한국 속담과 번역에 관하여는 이 책 외에 찾지 못했다.

그 외 러시아 지역의 저명한 1세대 한국 문학가들인 엘리세브(Елисеєв), 아게바(Агеева), 니키티나(Никитина), 트로체비치(Троцевич), 멘쉬코바(Меньшкова) 등의 번역이나 저술은 모스크바, 페체르부르크 지역에서 러시아어로 학술 번역 활동을 했으므로 러시아 지역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나 그들의 러시아어 저작이나 번역물도 키예프에 존재하여 한국학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단행본은 아니지만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이나 잡지에 기고 된 글 그리고 문학작품 모음집도 찾아 볼 수 있었다.⁵

특히 박인로 탄생 400주년 기념으로 ‘한국시가 연구’라는 논문은 1961년의 인쇄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낸다.⁶ 또한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

⁵ Корей 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 М 1959 한국문학 논문선집

избранное стихи М 1956 한국시선집

⁶ Пак Ін Ро до 400 річчя дня народження корей ського поета

으로 다산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이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⁷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번역 작품은 다음과 같다. 고전작품으로 김시습 금오신화, 정철 시가집, 김만중 구운몽, 춘향전, 홍길동전, 월북작가나 북한작가로 홍명희 임격정, 한설야 단편선, 사랑, 이기영 고향, 흙, 태기천 백두산, 젊은 근위병, 최서해 탈출기 강경애 인간의 문제 등이 번역된 대표작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효석, 이범선, 서기원, 한말숙의 작품이 번역 된 것은 중역이든 직역이든 한국의 문학을 우크라이나에 소개했다는 의미가 있다.

2000년 대에는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본인이 중신이 되어 몇 몇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했는데 대표 작품은 박지원의 양반전, 김동인 감자, 김승옥 무진기행, 하근찬 수난시대 와 한용운 김소월 김영랑 박목월 박두진 이장희 서정주 윤동주 천상병 박인환 신경림 정호승 등의 시작품을 번역했다.

어학에서는 고전적으로 러시아의 홀로도비치(Холодович. А. А)나 마쥬르(Мазур. Ю. Н)의 영향이 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스칼로쥬브(Скалозуб.Л.Г)의 연구가 눈에 띄는데 그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비교로 키예프국립대학교에서 칸지다트 논문을 썼으며 그 후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961 наука і життя No 8 1961 Рябенський . 조선의 시인 박인노 탄생 400주년 기념 논문 1961년 학문과 생활 8호 1961 라벤키.

⁷ Выдающийся корейский поэт и мыслитель к 200-летию со дня Чон Да Сана иностр.литература No 4 Еременко л 위대한 시인, 사상가 정다산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 외국문학 4호 엘레멘코.

2000년대 키예프국립대학교에 근무중인 모셴키스(Мосенкіс Ю.П)교수는 한국어 문어체의 5천년 전통(П'ятитисячолітня традиція картвельської писемності. Проблема походження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한국어문학자를 놀라게 했다. 저자는 자습으로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어를 배워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한자 이두 고려 조선시대 문어체까지 연구했다.

대표적으로 키예프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어학 관련 도서는 다음과 같다.

- 스칼라쥬브의 현대 러시아-조선어 자음표기비교 (Скалозуб Л. Г.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е описание согласных современных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К., 1958)

- 니콜스키의 한글의 보조어 (Никольский Л. Б. 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в кор. языке, М., вост.лит.1958)

- 콘체비치의 초기 한국어의 문체 문제 (Концевич. Л. Р. Вопросы текстологии первого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 1973)

- 마쥬르 조선어의 격변화 (Мазур Ю. Н. Склонения в кор.яз. М., изд. МГУ, 1962)

- 홀로도비치 한국어 문법 (Холодович. А. 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동양어 역사에서 문법 문제 (Вопросы грамматики и истории вост языков М 1958)

- 한국어와 중국어의 논문집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Л 1958)

- 한국어논문집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 1961)

역사적인 측면을 보자면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КНДР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 -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이라 부르는 반면 한국을 남한 (ЮЖНАЯ КОРЕЯ)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1945년 해방 후 1980년 말까지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괴뢰정부로 보고 북한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탓이다. 이러한 연유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에 부응한 역사 학자들의 연구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 연구는 그 연구 시기의 정치적, 이념적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및 구 소련 지역에서의 역사 연구를 살펴보면 자명하다. 그 예로 샤브쉬나 (Шабшина Ф.И)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일변도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역사책을 쓰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는 한국 일변도의 책을 쓰고 있다.⁸ 역사는 하나이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 대통령의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했던 유학구는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하여 «일본역사 편찬의 한국 고대사의 문제» (проблемы ранн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япон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М 1975)라는 책을 출간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연구를 탓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그러한 경향을 고찰하자는 의미이다.

대체로 우크라이나에서의 한국역사 연구는 정치와 긴밀한 연

⁸ Шабшина 는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ф корей М 1963 (사회주의 조선) , Со скоростью" Чхондима",в новой Корее -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ю1960 새로운 조선의 천리마 운동. Очерк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1945-1953(새로운 조선의 역사,1945-1953) 등의 책을 썼으나, 1992년에는 В колониальной корее(식민지 한국)이라는 책을 썼으며 친 한국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을 갖는다. 1917년 이전에는 동양의 먼 나라로 여행문이나 기행문, 현지보고서 형식의 글이 남아있다. 혁명 후 1950년대 한국 전까지는 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개론서,⁹ 농민반란¹⁰이나 혁명 개론적 역사서,¹¹ 한반도에서의 대일 투쟁¹²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전쟁 후 80년대 중반까지는, 60년대 중반 후루시초프 집권기에 잠시 해빙기가 있었으나, 북한과 소련 양국의 학술 문화 교류가 밀접했고 인적 물적 자원의 많은 왕래로 북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한반도 역사서가 많이 저술되었다. 특히 한국어를 해독할 줄 아는 중앙아시아 교포 학자들의 한반도 역사 연구¹³는 소련 및 우크라이나 학계에 많은 영향을

-
- ⁹ *Корея, справочный материал* М 1945 (한국 편람과 자료)
Описание Кореи М 1960 (한국묘사)
Воробьев М. *История древней Кореи* 1961 (보로비요프, 한국고대사)
- ¹⁰ Тягай Г. Д. *Крестьянское восстание в Корее 1893-1895г. М., Акад.наук* 1953 (차가이, 1893-1895년 농민봉기)
Серов.в *Крестьянские восстания в Корее в XII веке* Л 1964 (세로프, 12세기 농민 반란)
- ¹¹ Сохнин А. Я. *в за единство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М.,Правда* 1950 (소흐닌 통일과 자주쟁취를 위한 민족투쟁 1950)
Шипаева В.И. *Корейская буржуаз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М 1966 (쉬파예바 : 민족 해방 운동기의 조선 부르주아지 1966)
Багмет : *Борьб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воей родины и позиц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 1956 (바그메트 : 조선민중의 자유와 독립투쟁 1956)
- ¹² Мазуров В. М. *Антаяпонская вооруженная борьб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вост.лит.,1958* (마쥬로프 : 1931-1940년 조선민족의 반일무장투쟁, 1958)
- ¹³ Пак.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 середине -XIX начале XX веков* 1982 (박 .Б.Д, 19세기~20세기 초 한국과 러시아, 1982)
Тягай .Г. Д *Очерк истории Коре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в* V

주었으며 북한에서 구소련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나 교환 연구원들에 의해 저술되어진 역사서도 많은 분량이 보관되어 있다.¹⁴ 이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1959년 고려인 사학자 미하일 박에 의해 번역 출간 된 삼국사기는 구소련 전지역의 역사 연구의 금자탑이라 볼 수 있다. (Самкук Саги Ким Бу Сик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и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М 1959)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 50년대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역사서가 눈에 띄는데 이들 저서는 한결같이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의 복침'¹⁵ '북한군과 중공군의 무용담', '인민들의 대미투쟁' 등을 묘사하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세력 팽창에 따른 역사이론서가 등장하며, 각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에는 김일성 전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¹⁶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전술한 바와 같이 상황은 급변하여 한국일변도의 연구저술과 번역이 이루어 지고 있다.¹⁷

어문학 및 역사 외 일반 자료

1983 (차가이 Г.Д, 19세기 후반 조선의 역사, 1983)

¹⁴ Ха Ан Чен Идеи Октября живут в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е М 1957 (하안정. 조선민중의 삶의 10월 정신, 1957)

Пак Дон Дин Заключение перемирия в Корее и его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К 1959

(박동진. 휴전 협정과 역사적 의의, 1959)

¹⁵ Аварин В.Я. Борьба за Тихий океан. Агрессия США и Англии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2 (아바린 : 태평양전쟁, 미,영 침략과 민족해방투쟁 1952)

Американских агрессоров М 1952 (미국의 침략 1952)

Кожин А.И. Корея в дни войны М 1952 (전시의 조선 1952)

¹⁶ 국회도서관의 120여권의 역사책 중 김일성 전집이나 관련서적이 32권 있었다.

¹⁷ Торкунов А.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М 2000 (토르쿠노프. 의문의 전쟁 한국의 분열 2000)

경제서의 경우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분야에 있어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번역, 출판이 눈에 띄게 보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 한국의 최근 서적들도 목격할 수 있었다. 53년 10월과 54년 9월 기간 중 국제기구 재정, 회계 관련 한국문제 유엔회의 자료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한국에 관해서는 1980~90년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모델로서 부각시킨 자료들이 있으며 정부의 통상정책서들이 러시아 및 외국어판(영, 불, 독역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고고학¹⁸과 음악,¹⁹ 미술²⁰ 분야에도 몇몇 서적이 소장되어 있어 한국문화 전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주마간산 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관련 자료는 러시아 및 CIS 타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인에 의해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된 자료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어 해독자가 극소수이고 시간도 충분치 못해 자료를

¹⁸ Шоков А.Ф Археология корей М 1962 (쇼코브 한국의 고고학 1962)

¹⁹ Васильченко Е.В.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музыкальных культур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а М 1983 (바실리첸코. 아시아와 아프리카 음악연구 1983)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음악을 소개하며 한국부분도 언급하였음.

²⁰ Живопись КНДР М 1960 (북한의 회화, 1962)

Глухарева О .Н искусство Корей М 1982 (글루하레바. 한국의 예술, 1982)

Корейское класс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 1972 (한국고전미술논문집 1972)

우크라이나의 한국학 자료 분석

분석하지는 못하고 카탈로그를 찾고 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자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아직도 멀기만 한 우크라이나이지만 한국에서도 소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어문학도 강의 하고 한국어로 된 우크라이나어 관한 자료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한다.